

‘세습을 막아라’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외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세습은 구태다. 세습은 양상 레짐이다. 21세기 대명천지 열린 세상에서 권력을 세습하는 나라는 없다. 아버지가 황제라고 해서 아들이 황제가 될 수도 없다. 백작아들이 백작이 되고 남작아들이 남작이 되는 것도 아니다. 아예 제왕과 귀족은 없어졌다.

국민이 주인인 세상이 됐다. 영국처럼 왕이 있고 황태자가 있지만 그것은 국가적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다. 나라의 판촉기구이며 관광상품일 뿐이다. 옛날처럼 민중의 생사여탈권도 없을뿐더러 재산도 그들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더 이상 왕궁은 그들 것이 아니다. 국가 예산의 일부를 타서 그들은 살림할 뿐이다.

일본 천황도 권력을 일찌감치 쇼군이나 총리대신에게 내주었다. 그 와중에서 대동아 전쟁의 괴수짓을 하기도 했다. 최근 망종 극우파들과 함께 다시 군사대국을 도모하고 있다. 또다시 세계평화를 우롱하는 전쟁놀이를 하고 있지만 모두 허망한 것임을 깨닫는 성찰이 그들에게는 필요하다.

의당 의사 아들이 그냥 의사가 되지도 않고 목사 아들이 목사가 될 수도 없다. 자격과 능력을 검증받아야하는 민주세상이다. 아버지가 택시 운전수라고 해서 아들이 택시 운전수가 될 필요도 없다.

프랑스 대혁명은 18세기 말에 일어났다. 영국의 명예혁명과 미국의 독립전쟁의 정신에 기인하여 근대시민사회의 물질적 정신적 혁명의 토대가 되었다. 봉건제로부터 자본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부르주아 혁명과 민중혁명의 성격을 갖고 있다. 당시는 추기경과 주교 등 고위 승려층과 귀족들로 특권층은 구성되어 있었다. 그들은 국가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정부 고위직을 독점했다. 이에 맞서 기업가와 중산층 부르주아지 그리고 농민들이 일어났다. 당대의 지식인들도 합세했다. 이른바 자유주의 사상이 몽테스큐와 민주주의 사상을 외친 루소같은 계몽주의자들이었다. 다수는 승리했다. 이로써 양상 레짐은 무너졌다. 권력에 따른 구질서는 붕괴됐지만 금력이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했다.

자본주의가 성숙해진 오늘날 이 땅에서는 총수경영학이 화두에 올랐었다. 한 신문의 칼럼이다.

“기업의 오너가 아닌 전문경영인은 총수가 될 수 없다. 기업경영권을 탈취한 뒤 지분을 늘려 총수로 변신할 수 있지만 이는 반란행위다. 총수는 재벌의 오너이자 최고 경영자다. 본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으로 다각화된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배한다. 한마디로 재벌의 황제이며 세습까지 가능하다. 미국 일본 등 외국에도 대규모 기업 집단은 존재하지만 경영권이 총수와 그 가족에 의해 독점·세습되는 것은 아니다.

총수가 이끄는 재벌체제는 과거 개발연대에 신속한 의사결정과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투자집중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재벌위주 성장에 따른 자원 배분의 왜곡과 정경유착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 재벌체제가 성장의 원동력이 아닌 극복해야할 과제로 남게 된 것이다.”

내수기업과 수출기업의 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해졌다. 국내에서 제품을 비싸게 팔고 해외에서 싸게 파는 등 국내외를 분리한 경영전략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불공정거래, 편법상속 등으로 인한 기업 이미지 추락도 국내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한국기업들이 기득권에 젖은 구태노조, 구태경영을 과감히 결별해야한다는 전제 조건이 붙어있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0월 20일 (금)	10월 23일 (월)	10월 24일 (화)	10월 25일 (수)	10월 26일 (목)
미	달	러	(USD)	1357.60	1355.10	1353.20	1343.90	1347.00
일	본	엔	(JPY)	906.18	904.15	903.97	896.74	896.98
영	국	파	운 드	(GBP)	1647.99	1648.14	1657.47	1634.18
캐	나	다	달 러	(CAD)	989.43	988.73	988.46	977.88
홍	콩	달	러	(HKD)	173.50	173.20	172.95	171.78
중	국	원	(CNH)	185.41	184.76	184.48	183.94	184.18
유	로	화	(EUR)	1436.34	1435.32	1443.73	1423.66	1422.97
호	주	달	러	(AUD)	858.41	856.36	857.18	854.45
싱	가	폴	달 러	(SGD)	988.82	987.61	990.16	981.99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84.85	284.24	282.33	280.86